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機)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18)

■ 權仁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중종 26년(1530년) 경인년 12월 6일, 즉 충재 선 생 53세 때 임금이 선생의 직첩을 12년 만에 되돌 러주도록 명하였다가, 대간(臺諫)에서 반대 논의 를 아뢰자 다시 환수토록 하였다. 다음해인 충재 선생 55세 3월 23일 부인 화순(和順) 최씨가 세상

직장(直長) 세연(世演)의 따님이다. 8월에 봉화 와단리 경좌(庚坐;남서쪽을 등진 자리)에 장사지 냈다가 후에 선생의 묘소에 합장하였다. 후일 정경 부인에 추봉되었다.

충재 선생 56세 3월에 임금이 선생의 직첩을 15 년 만에 되돌려 주도록 명하고, 4월에 다시 서용 (敍用) 토록 하고 용양위(龍驤衛) 부호군(副護軍; 종4품)에 임명하였다.

선생이 임금의 부름을 받아 봉화에서 서울로 올 라오다가 지름길로 들어 음성의 음애 이자를 방문 하였다.

음애는 선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시냇가에 나 와 기다리다가 서로 만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후 작별 하였다. 같은 해 6월에 선생은 지방관으로 밀 양부사(종3품)에 제수되었다. 이 때 중종 임금은 선생을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자 하였으나, 권력을 휘두른 김안로(金安老, 1481-1537) 등에 의해 외직 으로 나아갔다.

선생이 경상도 밀양으로 부임 차 내려갈 때 마 침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이 당시 성균관 유생 으로서 고향인 안동 예안으로 가는 하향길이라 마 전포(麻田浦; 삼전도; 송파나루)에서 만나 선생을 배종(陪從)하여 함께 충재 선생과 동갑이자 뜻을 같이 하고 기묘사화에 파직되어 있던 모재 김안국 (金安國, 1478-1543)을 경기도 이천에서 만나보게 되었다.

'퇴계년보退溪年譜'에 이르기를 "충정공(忠定 公: 충재 선생)을 따라 모재(선생)를 찾아뵙고 비 로소 정인군자(正人君子)들의 말씀을 얻어들었 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때의 일로서 퇴계가 두 선생을 극히 존숭흠모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또 한 충주 누암(樓巖)에 이르러 다시 이음애를 만났 는데, 6개월 후인 12월에 선생의 절친한 지음인 음 애가 세상을 떠나 그 부음을 듣고 선생이 통곡하였 으니, 이때가 마지막 해후였다.

이 때 탄수 이연경(李延慶, 1484-1548)과 준암 이 약빙(李若氷, 1489-1547)이 함께 와서 만났다. '7월 에 밀양에 부임하여 선생은 학교를 바로 세우고 백 성을 사랑한 치적이 크다'는 기록이 '밀양지密陽 志'에 전하고 있다.

충재 선생 58세 때 한성부 좌윤(左尹;종2품)에 임명되었고, 그해 9월 23일 부친 의정공께서 세상

을 떠나 겨울에 봉화 유곡 북쪽 정향(丁向;남쪽향) 에 장시를 지냈다. 3년 복상 후 선생 60세 때 11월 에 충무위(忠武衛) 상호군(上護軍;정3품)에 임명 되고 12월에 다시 한성부 좌윤에 임명되었다. 그리 고 다음해인 선생이 61세 때인 중종 31년 무술년 2 월에 경상도 관찰사(종2품) 겸 병마수군절도사(兵 馬水軍節度使;종2품)를 임명받았다.

이 때 선생이 궐내로 들어가 하직 인시를 올리자 중종 임금이 "영남은 중요한 진영인데 요즘 잇달 아 흉년이 들어 유랑하는 백성이 많다고 하니 경은 힘을 다하여 안정케 하라."고 당부 하였다.

이에 선생이 대답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은 조정에 있고, 조정의 근본은 임금의 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즈음 사치를 숭상하는 풍조가 온 나라 안에 만 연하였사오니, 전하께서 검소하신 덕을 먼저 행하 신다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敎化)를 받을 것이오 며, 그렇게만 된다면 흉년이 들더라도 걱정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해 7월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종2품) 에 임명되었고, 8월에 형조참판(종2품)과 9월에 형 조참판 겸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 부총관(副摠 管;종2품)에 임명되었다. 또한 중종 임금이 "문원 영화文苑英華"(중국 송나라 태종의 황명으로 이방 李昉 등이 편찬한 시문집詩文集)를 선생에게 하사 하였다. 62세 때 2월에 병조참판(兵曹參判;종2품). 63세 12월에 지중추부사(정2품) 겸 오위도총부 도 총관(都摠管;정2품) 세자 좌빈객(左賓客;정2품), 64세 때 5월과 6월에 예조판서(정2품) 겸 지의금부 사(정2품), 68세 때 윤 정월에 의정부 좌참찬 겸 지 경연 지의금부사, 5월에 의정부 우찬성(종1품) 겸 판의금부사(종1품), 8월에 병조판서(兵曹判書) 등 의 벼슬의 명칭을 보아도 선생의 군국기무(軍國機 務)와 경국제세(經國濟世)에 능한 면을 추천선거 (推薦選擧)하여 벼슬을 임명받은 것이 아닌가 한

또한 충재 선생 62세 때 7월에 지충추부사에 임 명되어 개종계주청사(改宗系奏請使)로 명나라 북 경에 가게 되었다. 이 때 기록인 '조천록朝天錄' ("충재집冲藥集"권8)이 전한다. 이 일로 후일인 선 조 24년(1591년) 종계가 개정(명나라의 "대명회전 大明會典"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고려 말의 권신인 이인임(李仁任)의 후예로 되어 있어 이를 고쳐주도록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노력해 왔 으나, 명나라 조정은 태조 고황제 주원장(朱元璋) 의 만세불변의 조훈(祖訓) 다른 날 새로 간행할 때 고치기로 한 것을 바로 잡음)되어 충재 선생의 보 국공업(輔國功業)에 훈공(勲功)을 가하여 "광국

훈(光國勳)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 겸(兼) 영경연홍 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領經遊弘文館藝文館春 秋館觀象監事)에 증직되고 광국원종공신(光國原 從一等功臣) 녹권을 하시받고 친진부조(親盡不祧 ; 불천위不遷位)의 제사를 받들라"고 하였다.

인종 원년(1545년)인 을사년, 충재 선생 68세 때 정월에도 남해 앞 바다에 괴선박이 나타나 소요가 있었다. 이를 잘못 처리한 전라수사 양윤의(梁允 義)에 대한 처리와 국방 문제에 대해 사헌부나 사 간원 등에서 '권벌이 국사를 염려하고 군국기밀 (軍國機密)과 국방(國防)에 대해 적중한 것이니 그의 의견대로 임금이 윤허해 줄 것' 간청하는 것 을 볼 때. 충재 선생이 문무겸전(文武兼全)하여 출 장입상(出將入相)의 풍모와 공업이 조정과 지방관 으로서의 내치(內治)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이 룩한 외교(外交) 등에서 이룩한 바가 우뚝하였음 이 증명되며, 당시에 그의 경륜과 경세사상이 탁월 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그해 4월에 경연(經筵) 에서 "서경書經" '무일無逸' 편을 강의한 다음, 기 묘사화 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쓴 선비들의 원통 함을 풀어주도록 청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국헌공 權侙과 漢文小說

■ 申海鎭(전남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강로전〉

번역과 주석

동사잡록본 〈강로전〉

〈지난호에 이어서〉

17

오랑캐 장수가 말하였다.

"죽인 바가 이미 많으니, 그쳐도 되겠습니까?" 홍립이 말하였다.

"아직은 아니다! 이곳에서 떨어진 안주(安州), 평양(平壤) 등은 모두 큰 진영(鎭營)이다. 조선 땅으로 나아가도 물러나 는 일은 오직 내가 지휘할 것이니. 병사들은 계속해서 엄습 하고 죽이도록 지휘하여라."

이윽고 홍립의 군대가 지나가는 도중 능한성(凌漢城)에 에 사람하나 없다는 소식을 듣고, 흥립은 기뻐하였다. 이르자, 성안의 사람들은 오랑캐 기병이 들판을 덮고 성을 압박해 옴을 보고는 싸워 보지도 않고 흩어져 달아나버렸다. 홍립이 오랑캐 병사들을 독려하여 사방에서 조여 왔는데. 성 안에 가득한 사람들의 목숨이 잠깐 동안에 결딴나니, 그 참 혹함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었다.

청천강(淸川江) 서안에 이르자, 오랑캐 장수가 말하였다. "두 곳에서 살육한 것이면 위엄을 보이기에 충분하니, 안 에 있지 않은 사람들[置散]에게 알리노라. 주(安州)에 사람을 보내어 강화함이 좋겠습니다."

홍립이 말하였다.

"잠시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홍립은 자신과 함께 오랑캐에 투항했던 무인(武人) 박난 영(朴蘭英)을 안주로 보내어, 성문 앞에서 크게 소리 질러 강화의 뜻을 전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절도사 남이흥(南以 興)은 병마우후(兵馬虞候) 박명룡(朴命龍)을 성위에 올려 보내 응답하도록 했다.

"목을 자르는 장군은 있어도 강화를 하는 장군은 없다!" 난영이 오랑캐 진영으로 돌아와 보고를 하자, 홍립이 버럭 성내어 말하였다.

"조선이 아직도 잘못을 뉘우쳐 고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더 도살함"이 옮다!"

병사들을 몰아 동북쪽 모서리에서 곧장 공격하여 함락시 키니, 남이흥은 목사(牧使) 김준(金浚)과 함께 군루(軍樓) 에 앉아 분신 자결했다.

성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울부짖으며 허 둥지둥 달아나 숨었다. 홍립은 한윤과 함께 오랑캐 병사들을 나누어 독려하여 풀 베어놓듯이 살상하니, 시체가 거리를 메 우고 유혈이 도랑에 가득한데, 거의다 마구 찍어 죽인 것이 었다.

성을 지키던 중, 마침 홍립이 말을 달러 사람들을 뒤쫓아 가 서 죽이려는 것을 보고는 곧장 말 앞을 막아서며 부르짖었 다."사도(使道)께서는 조설의 대인(大人)이시거늘, 어찌하 장으로 삼고는, 병사를 나누어 진영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여 살육을 금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홍립이 말하였다.

"너는 나와 동향인이라는 옛정이 없었다면, 감히 내 말의 고삐를 잡고도 죽음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구족(九 族)이 이미 몰살당했기 때문에 돌아와 원수를 갚는 것이니,

어찌하여 금하겠느냐?"

그 사람이 깜작 놀라며 말하였다.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부인께서는 천수를 누리고 돌 아가신지 몇 년이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헛소문을 듣지 마십시오."

홍립은 말하였다.

"그런가? 어찌 그럴 수가 있으랴!""사도의 숙부 진창영감 (晉昌令監)은 지금 조정에 벼슬아치로 계시고 사도의 맏아 들도 아직 옛집을 보전하고 있으니, 다른 시람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홍립이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한윤이란 놈에게 속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구나!" 마침내 오랑캐 장수를 급히 불러서 당장 면사기(免死旗) 를 올리게 하여 살육을 중지시켰다.

이어서 한윤을 매 꾸짖고는 그와 절교하였다. 그 후, 평양 (平壤), 황긴(黃岡) 등의 진영에서는 오랑캐의 사나운 기세 를 보고는 맞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모두 달아나 천리 사방

"이번에 군대를 이끌고 온 것만으로 조선 팔도를 마음대 로 돌아다녀도 되겠구나."급히 평양에 도착해서. 4대문(四 門)에 방(榜)을 붙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팔도 도원수 금국 대장군(八道都元帥金國大將軍)을 겸 한 강홍립은 부로 군민(不老軍民)과 문무관(文武官), 현직

이번에 대군을 일으킨 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토벌하여 본시 편안히 하고 따르게 하고 자 함이니, 딴마음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며 각자 농사짓고 누에치기 바라노라.

산림(山林)이나 여항 사이에는 반드시 재주를 품고 있으 면서도 펼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며. 공명에 뜻을 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때를 만나서 올바른 정치를 위해 스스로 사납고 민첩한 자들 중 원근에 뜻이 깊은 자들은 일제히 응하라!' 홍립은 애 당초 '방문(榜文)이 널리 퍼지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조용하여 응하는 사람이 없자, 탄 식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과, 호걸(豪傑)들이 응하여 이르지 않음은 참으로 한스럽구나!" 한윤이 옆에 있다가 손뼉을 치며 말하였다.

'어리석구나. 홍립이여! 그토록 사람 죽이기를 삼대 베듯 이 하고서도, 어찌 사람들이 모두 그럼자처럼 언제나 그대를 따를 것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너의 속마음이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홍립이 성내며 말하였다.

"사람 죽인 것이야 내 본심이 아니라 모두 네가 시켜서 그 이때 홍립과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경포수(京砲手)로 렇게 한 일이다 오직 한강의 물을 말에게 먹이고 난 뒤라야 대시는 결판날 것이다."

> 이에 박난영(朴蘭英)의 아우 규영(葵英)을 평양성 수비대 마침내 군대가 진군하여 황해도 평산(平山)에 이르렀는

데, 오랫동안 비가 내려 진창길로 변하자, 이곳에 머무른 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李佑成(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論道山之學

1. 仁政德治의 '王道'를 주장함

그러므로 그는 "신하가 간언을 함에는 반드시 직언을 해야 하니.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고해야 하며. 은폐하여 잘못을 거짓 꾸미거나 근거 없는 말이나 지엽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同上書, "論語·憲間")"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조정 중의 몇몇 대신의 행동거지를 비판하 기를, 그들은 국가 대사에 대해서 "開悟上心, 防徼杜漸" 할 수 없고, 또 "正色立朝, 有不可之節" 할 수도 없으며, 오히러 반대로 소인배들과 함께하여 소인의 권세를 양성하고, 소인 이 권세를 얻은 후에는 감히 바른 말로써 저지하지 못하여 국 가의 禍害를 조성하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는 賢才를 등용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골라내어 "得人 之要"를 강구한다는 것이다.

권득기는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면 "반드시 천하의 현인을 등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임금은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며 반드시 그를 위해 官을 설치하고 職을 나누어서 다스려야 하 기("晚悔集"殿策)"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또 賢才를 등용해 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관리가 현인이 아니면 즉 "모든 일이 잘못되며", 관에 서 현인을 얻을 수 있으면 즉 "百官이 모두 좋아하니", 곧 농 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묘목을 기르고 잡초를 제거 하는 것과 같으니, 잡초를 제거해야 볏모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강조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되 반드 시 현인을 등용하고 사악한 자를 물리쳐야 하니, 현인을 얻어 서 함께 다스린 즉 나라의 다스림이 여기에서 멀지 않다"고 하였고, 아울러 또한 "사람을 얻은 즉 다스려지고 얻지 못한 즉 어지러워 진다"는 귀한 결론을 얻었다.

권시는 그의 부친의 관점을 계승하여 "賢者在位·能者在職, 取其所長 所適其村("炭翁集"附錄・家狀)"의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국가에 취할만한 賢才가 있어 등용하려면, 즉 반드시 "관리가 많은 폐단을 징벌하고" 불필요한 관리를 도태시켜서 비로소 진정으로 進賢退邪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임금은 또한 마땅히 "得人之要"를 중시해야만 하는데 "中" 즉"中立不倚, 無所偏靠"와"和" 즉"從容中節, 無少差謬"두 가지를 이룸으로써 장차 인재를 식별하고 선발할 수 있으며 다. 비로소 치도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단지 "中"과 "和"에만 이르러도 賢者는 비로소 즐겁게 쓰 임이 되며 不賢者는 선하게 변하니 "得人之功, 庶績之疑, 斯 在是矣(同上)"이다.

다섯째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행하고 정치의 실효를 강구한다. 권득기・권시는 왕도정치를 제창하여 仁義로써 나 라를 세우고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을 것을 중시하고 조 정이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행하고 백성을 仁하게 하는 일세법을 추친함으로써 세금을 가벼이 하여 "養民則務農爲 실효를 거둘 것을 요구하였다.

권득기는"殿策"중에서 "신은 듣건대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 이 있는 자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시행할 수 있고, 백 성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하는자는 백성을 仁하게 하는 실효 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임금이 된 자가 이러한 마음으로써 仁政을 행할 수 없으면 즉 다스림의 실효가 여기에서 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그들은 '養民' '富民' '保民' 등 일련의 實 事•實政•實效와 관련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다.

1)"養民은 농사에 힘쓰는 것이 근본이다."

권시는 "爲政多端"이라고 하면서, 만일 무엇이 근본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백성을 기르는 것이 근본인데 백성을 기르는 것은 즉 농사에 힘쓰는 것이 근본이다("炭翁集"券4"講大學衍 義")"라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은 세금을 기볍게 하고 大同法을 개선하여 "什一而 稅"를 행하는 것이다. 그는 조정이 大同法을 제정하여 이전에 각종의 貢物을 징수하는 방법을 없앰으로써 어느 정도는 농 민외 무거운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조정은 세금이 고르지 못함을 염려하고 백 성들의 근심함을 걱정하여, 비로소 대동의 정책을 베풀었다. "炭翁集 券2 '論大同三稅疏"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또 대동법의 실시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하나는 세금이 고르지 못하여 농민의 부담이 과중한 것 이다. 각지의 세금 징수가 일률적이지 않아서 湖西는 10두이 고 湖南은 13두이며 畿內는 즉 16두이니 그러므로 "호남의 백 성이 모여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호서는 10두이고 호남은 13 두이니 이것이 어서 조정이 호서의 백성을 편애함이 아니겠 는가!" "畿民의 곤궁함은 타도의 10배인데 혼자만 6두를 더하 니 그 원망함이 심하다.(同上)"라고 하였다.

세금의 부담이 고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백성의 분노를 일 으키게 된다. 그래서 그는 대동법을 개선할 것을 극력히 주장 하여 이른바"대동 정책은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잘 하면 양법 이지만 잘못하면 원망이 쌓이고 큰 폐해를 끼치는 것이니 조 정에서 잘해야 한다(同上)"고 하였다.

그 개선 방법은 즉 전국 각지에서 공평하게 什一稅制를 추 친하는 것이다. 그는 "什一, 天下之中正也." "오늘 날의 농민 의 소작논 밭 1결에서 취하는 것이 米가 百와이나 세금은 이 십두가 나가니, 즉 정말로 什一이다.(同上)"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농민에게 징수하는 상황은 완전히 "什一"세제 의 원칙과 같지 않으니, 규정된 납세미 외에 또 이른바 "三手 糧" 등 기타 세미를 더 징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

그 두 번째는 세수액이 그 해외 풍흉을 구분하지 않으니, "근년에 대부분이 흉년"이나 오히러 일률적으로 상·중·하의 세금을 부과하여 "혹은 上上之稅를 초과"하나 백성들의 원 망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는 조정이 이렇게 하는 것은 "民 爲邦本, 政在養民"과 "養民則務農爲本"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此豈益下之義, 什一之政乎!"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조정은 마땅히 대동법을 개선하여 십 本"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을 건의하였다.

〈다음호에 계속〉